

## 좌측서혜부 허니아의 수술 1례

조 준 행\* · 김 동 환\*\*

14세된 치와와 암캐는 얼른 보면 5~6세로 작각할 정도의 외모와 맑은 눈을 가졌으며 치아 또한 깨끗하였다. 단지 복부의 탈모와 유방 근처의 주름이 나이를 느끼게 할 뿐이다.

좌측서혜부에 큰 호두알 2개 정도의 크기로 혹이 생기면서 식욕도 나빠졌고 또 며칠전부터 움직이기를 싫어하였다.

개 나이 14세이면 사람나이로 쳐서 70여세는 족히 될 것인즉 간도 콩팥도 나빠졌을 것으로 수술 또한 그 예후가 좋을 수만은 없다.

체중 22kg, 체온 38.7°C, 맥박 1분당 100회이며 핏기없는 복부는 비듬과 주름이 많이 잡혀있고 하복부는 촉지하면 통감을 느끼고 사람이 그 자리를 만지는 것을 몹시 꺼리는 느낌이다.

외음부를 관찰하니 길이 2.5cm, 폭 1.8cm로 마치 발정기 때와 같은 크기의 종창을 볼 수 있으나 발정시의 외음부와 같은 팽팽함과 윤기가 없이 반대로 약간 쭈글쭈글한 주름이 몇가닥 잡혀있고 윤기 또한 없었으며 음부입구에 담겨진 액체가 있어서 소독된 탈지면으로 그 액체를 닦은 후 보니 콧물같은 삼출액이었고 다시 그 냄새를 맡아보니 약간 쿠리고 텅텅한 냄새가 났으며 이 냄새가 이 개의 체취가 아니고 음부에서 나온 분비물의 냄새였음을 즉시 확인하였다.

다음 하복부 좌측서혜부에 돌출된 부분을 손바닥으로 서서히 압박하니 돌출된 부분이 복강

내로 들어가긴 들어가되 다른 허니아같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좌측 서혜부에는 이미 길이 5cm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어서 그곳으로 부터 복강내 장기가 돌출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복강 내로 들어감으로써 음부에서 농양의 삼출물이 나오는 것을 봐 자궁축농증으로 인한 허니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좌측 서혜부의 돌출된 장기가 자궁이었음을 촉지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자궁을 복강내에 밀어넣음으로써 생긴 복압은 하복부 반대 쪽 우측 서혜부의 윤기를 보았고 그곳을 만져보니 그곳 역시 길이 3cm 정도 구멍이 이미 생겨져 있음을 알아냈다.

이로써 삼출물이나 혈액검사도 없이 자궁축농증으로 인한 좌측서혜부 허니아임을 진단할 수가 있었고, 원인으로 노견기에 hormone 부족과 운동부족으로 생식기능의 약화와 복강주위 근육의 이완으로 온 자궁축농증에다 선천적으로 서혜부의 약한 근육층의 파열과 자궁축농증으로 인한 자궁체의 비대가 복압을 상승시켜서 서경부의 약한 근육층을 뚫고 복벽에 돌출된 것일 것이다.

축주에게 자궁축농증에 대해 이 병의 원인과 몇가지 치료방법을 설명해 주니 살 수만 있다면 수술이라도 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예후가 확실하지 않은 자궁절제수술을 하게 되었다.

어느 수술때와 같이 수술부위의 털을 깎고면

\*청운동물병원 · \*\*성심가축병원

도를 하며 수술부위에 1차, 2차 소독을 하고 복부에 sorax를 5분 조사하고 개 주인에게 개 상체를 들게 하고 한손을 개등에 받치고 나머지 한손을 개의 배꼽아래로부터 약한 압력을 등쪽으로 주며 하복부를 향해 쓸어 내리니 외음부에서 다량의 농즙양삼출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동작을 2번하고 나서 체중을 다니 2.2 kg이었고 체온은 38.7°C이며 맥박은 1분에 100회였으며 개가 힘이 너무 없어서 아미노푸신 40ml를 체온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서 정맥주사하니 곧 원기가 났으며 4시 10분에 kanamycine 1.5ml 근육주사하고, 4시 15분에 ketamine 0.5ml+combelen 0.1ml을 근육주사하고, 15분후인 4시 30분에 xylazine 0.1ml 근육주사하였더니 4시 35분부터 6시 10분 까지 좋은 상태의 마취효과를 지속할 수가 있었다.

수술방법은 자궁적출수술을 실시하고, 좌우서혜부의 구멍은 복벽이 너무 얇아서 복강내의 복압이 자궁체 축출로 어느정도 감하됨을 예측

하고 몇바늘씩만 봉합하였다.

수술후 2~3일간은 거동이 수술전과 같이 자유하였으나, 그후 차차로 원기를 회복하고, 식사도 잘하며 걸음도 정상으로 회복하였다.

수술시 주의점은 이미 자궁체내에 다량의 농즙이나 삼출물이 있을 때는 필히 농이나 삼출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빼어낸 후 자궁체 절단 수술을 할 것이며, 쇠약한 개에서 수술전 미리 영양제를 주사한 후 원기를 회복시킬 것이며, 노약한 개에선 마취시 마취약의 사용을 신중히 할 것이다. 특히 간장이나 췌장 그리고 신장의 손상과 혹은 당뇨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전한 수술방법이 될 것이며 또 수술시 농에 오염된 기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음이 수술후의 경과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거즈와 여러 벌의 수술포를 준비하여 오염 즉시 교환할 수가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수술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대한수의사회지 합본 (1981~1986)

### 주문판매中

정 가 : 1년분 합본 15,000원

주문처 : 대한수의사회

※ 주문시 년도 명기바람.